

활력이 있고
快適한
漁港漁村
建設

會訓
● ● ●
創奉誠
意仕實

漁港消息

발행경 孫井植 特殊 韓國漁港協會
편집인 金在克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705-9
TEL. 568-6651~2
ISSN 1227-7053 568-5595~6
등록일: 1988년 2월 19일 FAX. 568-6653

[月刊] 第110號 THE FISHING PORT NEWS 1997年 2月 25日(火曜日) [1]

韓國漁港協會 1997년도 定期總會 성료

21世紀 어항어촌미래상 實現 앞장 선진漁港漁村 발전방향 提示키로

孫井植 회장, 만장일치 재推戴

한국어항협회는 2월 19일 오전 11시 건설회관 3층회의실에서 97년도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1백 여명의 내외귀빈과 회원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해 주요사업 및 결산승인과 함께 올해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와함께 차기 회장에는 손정식 현 회장이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한국어항협회는 이날총회에서 △21세기 '새로운 어항어촌 미래상' 실현 △어항어촌 개발을 위한 기술의 발전과 홍보 △정부 위임 위탁사업의 효율적 추진 △어항인의 총의결집과 충실한 대변인 역할을 다한다는 올해 협회사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선진어항어촌 발전방향 제시 △어항어촌에 관한 조사 연구활동의 강화 △선진국과의 기술교류 및 협력 증진 △어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어항어촌 문화창달 △어항청소선 관리운영의 효율화 △파고계유지관리 및 수시점검 철저 △어항의 공동이익 증진 및 권익보호 등을 올해 주요사업을 확정했다. 신상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박규석 제2차관보가 대독한 치사를 통해 수산업을 21세기 국민식량산업으로서 육성하는 동시에 선진복지어촌을 이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우리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하여 어업 기반시설인 어항을 어촌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이제는 어항이 어선의 안전수용기능에서 벗어나 어촌관광, 수산물의 유통 가공 및 정보기지로서 다목적 기능을 갖는 종합기능항으로 어항 개발방식을 전환하여 다가오는 21세기에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상우 장관은 이와함께 "한국어항협회는 그동안 기능과 역할,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착실히 성장해 왔으며, 앞으로도 어항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합심 노력해 줄 것"



을 당부했다. 이에앞서 손정식 회장은 인사말에서 "단순한 어선정박 개념으로서의 어항이 아니라 어촌개발의 핵으로서, 어촌경제의 중심지로서 밝고 쾌적한 21세기 이상 어항어촌 종합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역량을 길러내야 한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고를 과감히 혁신하고 정책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강한 집념과 실천력이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손정식 회장은 특히 "어항 시공분야의 전문화 차별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어항업계의 기반이 탄탄히 구축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어항인 하나하나가

한국어항협회는 2월 19일 오전 11시 건설회관 3층회의실에서 1백 여명의 내외귀빈과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97년도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올해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회장으로 손정식 현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또 우리나라 어항개발 및 협회발전에 공이 큰 어항인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됨으로써 조용한 가운데 내실있는 협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우리나라 어항개발 및 협회발전에 공이 큰 어항인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감사패 수여자 명단 △박봉영 대표이

사(주식회사대양) △강장후 전무이사(주식회사삼양사) △안희도 책임연구원(한국해양연구소) △이운한 전무이사(주식회사도화종합기술공사) △김영남 상무이사(주식회사동원토질) △손광식 기술이사(주식회사건일엔지니어링)



손정식 회장 인사말씀

흔한 말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돌이켜 보면 참으로 많은 것이 변하고 달라졌음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립 당시만 해도 황무지에 한알의 씨앗을 심듯 무모하기까지 했던 협회의 첫발이, 10년이 흐른 지금 기능 조직 인력 등 모든 면에서 정상궤도를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로지 정부 당국의 전폭적인 배려와 어항인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 덕분임을 생각할 때 재삼 감사의 말씀을 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협회가 나아가야 할 원대한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의 위치는 그야말로 출발선상에 있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출범과 지난해 OECD가입으로 이제 어항업계도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국내외의 구분이 없는 무한경쟁시대에 휘말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한경쟁은 우리 어항인 특유의 단합된 의지와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 의식으로 무난히 물리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출범한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주변정세 변화에 적절히 대처해 주실 것으로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어항인 여러분! 정작 지금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부분은 내부의 이완된 의식입니다.

요즘 컴퓨터 속담에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보다 정직하고 합리적인 선택이 이루어져야 소기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들어 국내의 여러가지 상황에서 명백히 드러나듯이, 각자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아무런 사명감이나 국가관도 없이 그저 권력이나 금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잘못된 의식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간 피땀 흘려 닦아놓은 우리의 터전이 자칫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음을 가슴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올 한해 우리 협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할 일이 많은 그런 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한 어선정박 개념으로서의 어항이 아니라 어촌개발의 핵으로서, 어촌경제의 중심지로서 밝고 쾌적한 21세기 이상어항어촌종합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앞에 도사리고 있는 수많은 도전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역량을 길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사고를 과감히 혁신하고 정책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강한 집념과 실천력이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어항시공분야의 전문화 차별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만 어항업계의 기반이 탄탄히 구축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2면에 계속)

친애하는 어항인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자리를 같이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어항인 여러분! 1997년 올해로 한국어항협회가 설립된지 어언 10년, 특수법인으로 전환된지 3년을 맞았습니다.

전문화 · 차별화로 어항계 기반 구축 정책목표 실현위한 집념 실천력 구현

大規模어촌 觀光단지 시범造成 올해 1곳선정 文化관광漁村으로 育成

해양수산부는 30억원의 사업비로 대규모 어촌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어촌을 특성에 맞는 관광휴양단지로 개발해 나가기 위해 올해 제주, 전남, 전북 등 3개 지역중에서 1곳을 선정, 4천 5백평에서 3만평 규모의 시범 어촌종합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 종합관광단지에는 수산종합센터나 청소년수련장, 체험어장 등 관광휴양시설을 설치, 문화관광어촌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辛相佑 海洋水産部長官 致辭

한국어합협회 정기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나라 어항선진화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협회를 이끌어 오신 손정식 회장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와 불철주야 건설현장에서 노력 해오신 어항인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설된지 오래된 항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보강 확장함으로써 어항기능을 활성화하여, 어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항개발이 우리 어업인과 함께하는 어항 건설, 어촌개발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항인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건설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協會 어항발전 中樞的 役割토록 당부

력을 바탕으로 선진국들의 경제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였고 태평양 연안국가들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수산계로서는 숙원이었던 해양수산부가 신설됨으로써 수산해양행정을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고, 수산정책의 우선순위로 매우 높아지는 한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수산업은 그동안 어려운 국내외 환경과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출과 생산면에서 세계 10위권의 수산선진국 지위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도 우리 수산업계는 많은 도전과 시련이 예상됩니다.

대내적으로는 해양오염과 매립간척으로 수산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세계각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 그리고 금년 7월에는 수산물 수입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 우리 수산업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급변하는 국제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수산업을 21세기 국민식량산업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선진복지어촌을 이룩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어업기반시설인 어항을 어촌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친애하는 어항인 여러분!
금년에도 어항건설에 약 1천7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어항을 어촌지역 발전과 경제권의 중심지로 육성 개발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항시설 투자를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축으로 하여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면에서 계속>
이에따라 올해 어항협회의 기본 사업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했습니다.
첫째, 21세기 새로운 어항어촌 미래상 실현에 앞장 서 나가겠습니다.
둘째, 어항어촌 개발을 위한 기술의 발전과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셋째, 정부 위임 위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어항인의 총의를 결집하여 충실한 대변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어항인 여러분!
매번 말씀드려 왔지만 이러한 협회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꿈과 이상을 보다 높은 곳에 두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선결 요건입니다.
협회 역시 도전적이면서도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를 개발하고 수행해 나가겠지만, 여기에 어항인 여러분께서 전폭적인 지지와 뜨거운 협조를 보내 주신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모범적이면서도 발전적인 그런 협회로 성장해 나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안전 사고와 건설부문의 부실공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에서도 이같은 부실시공은 단호히 배격하고 부실시공 추방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항인 여러분께서도 이에 적극 동참하시어 우리 모두 각자의 전문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창의적이며 적극적으로 맡은바 소임을 다해 건설시공으로 완벽한 어항을 건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항건설 공사는 태풍이나 폭풍, 해일 등 계절적으로 자연의 영향을 받는 공사이므로 조기 발주함으로써 사전에 재해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어항이 어선의 단순한 안전 수용기능에서 벗어나 어촌관광, 수산물의 유통 가공 및 정보기로서 다목적 기능을 갖는 종합기능항으로 어항개발 방식을 전환하여 다가오는 21세기에 대비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어항을 중심으로 어촌정주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종합복지시설, 주민편의시설 등도 확충해 나가야 하며, 깨끗하고 편리한 어항이 되도록 어항 관리에도 힘써 나가야 합니다.

친애하는 어항인 여러분!
한국어합협회는 그동안 기능과 역할,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착실히 성장해 왔으며 앞으로도 어항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합심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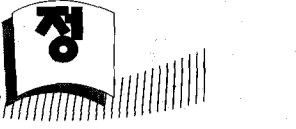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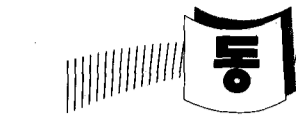
다가오는 21세기를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어항건설과 살기좋은 복지어촌건설, 그리고 해양수산업의 발전을 이룩하는데 그 역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한국어합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어항인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들은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힘을 모아야 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많은 피와 땀과 노력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변화에 뒤따르지 말고 변화를 주도하는 그런 협회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다가오는 21세기를 그저 수용하겠다는 생각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21세기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우리 어항인 모두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각자 맡은 바 일터에서 소임을 다하는 어항인 하나하나가 뚝뚝으로 조용한 가운데 내실있는 협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끝으로 오늘 1997년도 한국어합협회 정기총회를 맞아, '푸른 바다, 밝은 어촌, 활기찬 어항'을 이룩하기 위해 '쉬지않는 협회, 앞서가는 협회, 활짝여는 협회'가 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어항인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다시한번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빌어마지 않습니다.



해양수산부 고위공직자 연찬회 개최



辛相佑 해양수산부장관

▲신상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2월 15, 16 양일간 해양수산 공무원교육원에서 해양수산부 본부 및 소속기관 3급이상 공무원과 유관단체장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수산부 고위공직자 연찬회를 개최,

▲손정식 한국어합협회장은 2월 19일 개최된 1997년도 정기총회를 앞두고 12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14차 이사회를 개최, 15, 16 양일은 해양수산 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고위공직자 연찬회에 참석, 19일에는 해양수산부 중회의실에서 열린 독도 사랑에금통장 전달식에 참석, 20일에는 어민신문사 이사회에 참석, 22, 23 양일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 오리엔테이션에 참석,

▲박종식 수협중앙회장은 2월 5일 농림부 회의실에서 생산자단체들과 농어촌발전 기획 및 농정개혁 추진방안협의 간담회에 참석, 18일에는 서울역광장에서 3당대표와 서울시장을 비롯한 독도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독도 사랑에금조성을 위한 가두캠페인과 서명운동을 전개,

▲안성봉 한국어선협회장은 2월 17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경영합리화 추진위원회 전문연구위원회의 중간보고회를 주재하고 실효성있는 제도가 되도록 당부,

▲최상욱 남파도건설주식회사 회장은 2월 3일 광주학생독립운동후손 장학회간담회의에 참석, 20일에는 광주전남 21세기발전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 21일에는 전국범죄예방위원회 대표자회의에 참석,

▲고재철 금광기업주식회사 회장은 2월 12일 월드컵 광주 개최 범추위 간담회에 참석, 24일에는 범죄예방자원봉사 운영위원회를 개최,

▲마형렬 남양건설주식회사 회장은 2월 4일 광주시장에서 열린 기관장 정기조찬회에 참석, 13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 참석, 25일에는 광주상공회의소 97년 정기의원총회를 개최,

▲조남욱 삼부토건주식회사 회장은 2월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사회에 참석, 13일에는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세미나에 참석, 이어 해외공관장을 위한 오찬간담회에 참석, 20일에는 21세기경영인클럽 조찬세미나에 참석, 21일에는 전국

경제인연합회 조찬세미나에 참석,

▲장정언 정한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은 2월 13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 참석, 21일에는 한국정책연구원 세미나에 참석, 이어 전국범죄예방위원회 대표자회의에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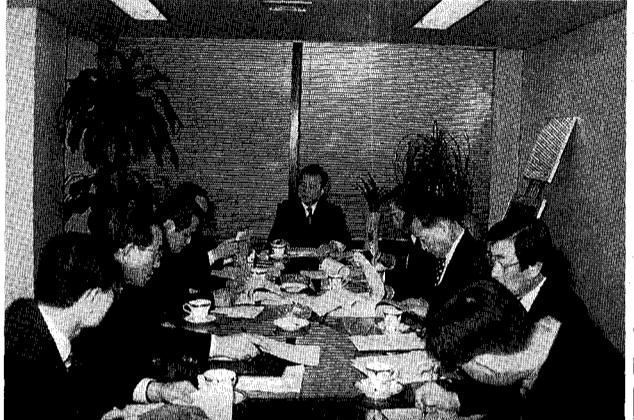
▲정윤삼 대지종합건설주식회사 사장은 2월 18일 진도공사현장을 방문하고 직원들을 격려,

▲임제호 삼오종합건설주식회사 사장은 2월 11일 제주도 수산해양개발협의회에 참석,

▲송재성 주식회사성호종합건설 회장은 2월 20일 삼천포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직원들

방태진 △"해양안전과 김윤호 김용

석 정남근 김경희 △해운선박국 해운정책과 홍종욱 △"선박기술과 한규수 남석창 △항만국 항만정책과 권석창 △"항만운영과 오광석 △"항만유통과 강용석 김용태 △"선원과 박민규 △항만건설국 기획과 이철조 김영복 △"건설과 오봉진 △"산업항과 홍순엽 △"개발과 권정기 △수산진흥국 어업인복지과 황치영 김천수 △"어항과 나웅진 △"수산정책과 장황호 △"어촌개발과 최광용 △수산자원국 연근해과 김우현 이경일 △"어업지도과 서태석 △"어장보전과



한국어합협회는 2월 12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 14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한국어합협회는 1월 31일 협회 회의실에서 어항청소선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을 격려,

인사

▲해양수산부 인사 △신항만 건설기획관 이동원 △부산항 건설사무소장 이종천(이상 2월 23일자).
□과장급 △무역진흥과장 이인수 △대통령비서실과장 이선준(이상 2월 11일자).

□서기관급 △기획관리실 투자심사담당관실 이채구 △항만국 노정과 박규현 △"항만유통과 정봉섭 △항만건설국 기획과 리원균 △수산진흥국 어촌개발과 추교필 △수산물유통국 수산기공과 김종봉 △마산지방해운항만청 총무과장 심준섭 □사무관급 △공보관실 김병찬 △비상계 획관실 손봉호 오재열 △국제협력관(원안어업담당) 실 최원현 최철진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실 임현택 △"전산통계담당관실 서병규 △해양정책실 정책총괄과 박하영 우동식 △"해양환경과

송양호 △"무역진흥과 이상문 장철호 △국립수산진흥원 편재환 △국립해양조사원 이상용 임영빈 △해양수산공무원교육원 기근도 △부산지방해운항만청 박영희 △마산" 박길환 △울산" 신종명 △동해" 해무과장 박성택 △"목포" 안도출장소장 조희일 △제주" 총무과장 고인철 △서해어항사무소 관리과장 홍성식 △중앙해난심판원 방광식 박효성 김규섭(이상 2월 10일자).

변경

▲김기평씨(보험감독원 부장) 자택주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까치마을 403-1101호. 전 화 번호:(0342)717-2662.
▲임중재씨(인천교역상사 사장) 자택주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무지개마을 LG아파트 203-404호. 전화번호:(0342)715-2362. (3면에 계속)

漁港을 중심으로 漁村綜合개발

어촌종합개발사업 개선방안 마련 소규모항포구 어항지정 개발키로

해양수산부는 향후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항기본시설이 완공되었거나 개발중인 어항을 중심으로 어촌종합개발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권역내 우수지역을 어촌관광단지로서 연계시켜 조성키로 했다.

또 어항과 어촌을 연계시켜 개발하기 위해 대상권역내 지정어항이 없는 경우에는 소규모 항포구 중 어항개발요건을 갖추고 있는 곳을 어항으로 지정 개발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은 그동안 어촌종합개발사업이 다른 수산사업과 별개로 투자되거나 지역여업인들의 숙원사업 위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안배 원칙에 의해 투자됨에 따라 집중개발이 되지않고, 사업효과가 저조하다는 자체분석 결과 마련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이와함께 내무부, 농림부 등 타부처 사업과 연계성을 제고시키고 자치단체의 개발의지 및 투자기여도를 고려하는 한편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권역의 규모를 지역여건에 맞게 축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추진실적 점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도 차등지원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의 감소, 해양오염, 어장축소,

어업인력의 감소, 수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날로 어려워 가는 어촌을 회생시키기 위해 95년부터 2004년까지 5천3백억원의 사업비로 투자개발여건이 구비되고 성장잠재력이 있는 전국어촌을 1백60개 권역으로 묶어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함께 신항만공사 추진에 따른 공사용 진입도로 건설이나 공사 자재보관창고 건설사업 등을 신항만공사의 부대공사에 포함시켜 각 개발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신항만건설공사를 촉진키 위해 한국컨테이너공단이 사업자인 경우나 신항만건설사업중 수익성이 적은 사업으로 공기단축이나 공사비절감이 필요한 경우 정부사업인 방파제 항로준설 등 항만기본시설의 발주에서 계약업무에 포함된 시공자 선정권을 민간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해 참여법인으로 하여금 위탁수수료나 사업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같은 방안은 국내건설공사에서는 처음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또 민자사업자가 공유수면

공동都給 활성화 기구 設置 건설산업 均衡발전 도모기어

대형업체와 중소기업간의 공동도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구가 설치되고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외국인 건설인력이 도입될 전망이다.

최근 대한건설협회 회장단회의 보고내용에 따르면 건설산업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대형업체와 중소기업체간의 공동도급 활성화를 위해 대한건설협회 내에 비상설기구로 '공동도급활성화추진협의회'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또 올해부터 2000년까지

약 2만 여명의 외국인 건설인력을 도입, 건설현장에서 활용하기로 하고 전담기구로 '외국인건설산업연수협력단'을 설치하는 한편 필요한 규정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의 턴키공사 활성화에 대비, 대형업체가 중소기업체와 공동도급을 할 경우 턴키공사 심사에서 우대해 주고 턴키공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체에 대해서는 설계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등을 정부측에 건의해 시행키로 했다.

釜山영도에 民資海洋공원 연말 着工

마산 群山에도 미래형 海上新都市

2천억원 규모의 부산해양종합공원 민자유치사업이 올 연말쯤 본격 착수된다.

최근 부산지방해운항만청에 따르면 부산해양종합공원 조성사업중 2천억원 규모 민간사업계획을 고시, 연말부터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이 사업을 재정경제원에 올해 민간대상사업으로 지정해 주도록 요청해 놓고 있다.

이 사업은 2천억원 정도의 민자를 유치,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해양대 입구 6만5천평의 부지에 지상3층 시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한편 이 해양종합공원부지에는 이같은 민자유치

시설업외에 해양대학교캠퍼스가 일부 들어서게 되며 해사고등학교도 영도구청 학동에서 이전돼 입주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마산항은 98년부터 2011년까지 7천8백33억원의 예산으로 하역능력을 크게 늘리고, 국제교역시설과 해양공원, 해양박물관 등 관광위락시설을 갖춘 미래형 항구로 개발된다.

또한 군산시 앞바다에는 여의도 면적(87만평)보다 넓은 규모(1백19만평)의 첨단해상신도시가 건설될 계획이다. 군산시는 이 해상신도시 건설을 위해 2011년까지 모두 8천7백66억원을 투입, 항만시설을 비롯해 주거단지 상업단지 국제무역센터와 해양공원 해양박물관도 설치할 계획이다.

매립지중 사업자에 귀속될 토지에 대해서는 상환기간 10년이내의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 사업자금조달을 쉽게 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해양수산부는 신항만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턴키로 공사를 집행하는 경

우나 특수기술을 요하는 공사로 하자책임구분이 불분명한 공사, 심의위원회에서 품질관리 및 공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등은 전기, 통신, 건설(건축)공사를 통합 발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반기부터 ISO 9001 시공현장 적용

工事品質 국제수준 상향

올 하반기부터 건설업체들은 국제품질인증규격인 ISO9001 내용에 따라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시험 뿐만 아니라 착공 전에 품질보증 계획을 세워 공사를 수행토록 하고 품질보증 계획의 수립기준에 국제품질인증 기준인 ISO9001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PQ대상공사와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 공사에 대

해서는 경영자의 품질에 대한 책임, 문서 및 자료관리, 제품식별 및 추적성, 검사 및 시험, 부적합품의 관리, 품질기록의 관리, 훈련 등 20개 항목으로 규정된 ISO9001내용을 전부 적용해 수립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 PQ대상공사와 다중이용시설 이외의 경우에는 ISO9001내용 중에서 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을 적용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의 수립 기준과 절차를 오는 4월 개

정예정인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건설공사의 설계 도서에 규정된 성능과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선정시험, 관리시험, 검사시험 등의 품질시험을 실시토록한데 이어 지난 1월13일 개정 공포된 건설기술관리법에는 공사시행전에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고 이에따라 품질관리를 하는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착공전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토록 명문화 했다.

(2면에서 계속)
▲이기민씨(현우회 사무총장) 자택주소: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26-3, 4층 402호. 전화번호:3443-8860.

▲윤주영씨(동도기업 대표) 자택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안동 초원마을 려키아파트 505-1001호. 전화번호:(0343)24-8489.

▲이상기씨(해양수산부 어항과) 자택주소:서울시 송파구 가락2동 140번지 쌍용아파트 101-802호. 전화번호:400-7227.

의 비 남 부

▲주식회사삼양사(사장 염민

웅)
▲김종규씨(해양수산부 양식과장)

▲박선석씨(전 수산청어항과)

▲김영남씨(주식회사 동원토질 상무이사)

▲손영수씨(전 한국어선협회 검사이사)

▲황덕환씨(전수산청어항과)

▲민성규씨(해양수산부 어항과)

▲김희천씨(전 수산청 과장)

▲전병하씨(전수산청서기관)

▲함의기씨(해양수산부 동해어항사무소)는 2월10일 부친상을 당했다.

민자사업 시행자에게 附帶시공선정권 부여

신항만 효율추진 위해

정부는 신항만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안벽 등 민자대상 공사 뿐만 아니라 방파제, 항로준설 등 정부사업의 시공자선정권도 민간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민자사업자가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공유수면매립지중 사업자에게 귀속될 토지에 대해 분양을 조건으로 상환기간 10년이내의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最新技術 개발로 漁港漁村 발전에 寄與하겠습니다!

전문기술용역 항만 및 해안,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도시계획, 환경

설계감리 항만 및 해안, 토질 및 기초

토목감리

항만기술부설연구소

會 長 姜 信 雄

副 會 長 閔 英 植
기술사(항만및해안)

副 會 長 許 成 富

代 表 理 事 孫 一 洙
기술사(항만및해안)

副 社 長 金 載 煥
기술사(토목시공)

技術理事 孫 光 植

技術理事 宋 寅 哲
기술사(항만및해안)

技術理事 趙 奉 濟
기술사(토목구조)

技術理事 安 重 善
기술사(토질및기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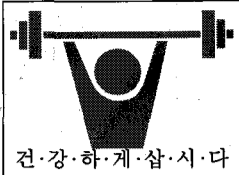
技術理事 呂 運 泰
기술사(도시계획)

서울 特別市 江南區 驛三洞 702-13 番地 (星志하이츠 I 2層)
대표전화 : (02)539-0506, FAX : (02)539-9350



株式會社 建一엔지니어링

KUNIL ENGINEERING CONSULTANTS CO., LTD.



류마티스관절염

진통제 복용으로 염증가라앉히고 관절보호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병행해야 효과

류마티스관절염 진통제 복용으로 염증가라앉히고 관절보호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병행해야 효과 류마티스관절염은 우리 몸 속의 면역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오는 병이다. 따라서 관절이 부었다고 관절내에 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인은 다른 곳에 있는 전신적인 질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우리 몸 속의 면역역성에 이상이 생겨서 온다고 알려져 있다. 류마티스관절염은 이상을 일으킨 백혈구가 관절을 직접 공격할 때 발병한다. 조기에 알 수 있는 증상으로서 아침에 특히 심한 관절통 이외에 날씨에 매우 민감해지거나 눈병이 잦고 피부에 울긋불긋한 반점이 생기거나 입안이 자주 헐고 손가락이 시리고 색깔이 변하거나 특별한 원인도 없이 쉽게 피곤해지는 것 등이다.

이밖에 입이 자주 마르거나 치아가 갑자기 약해질 때, 고막에는 이상이 없으나 귀가 울리고 잘 안 들릴 때, 목이 자주 답답하고 편도가 부을 때, 목 소리가 선 것처럼 변했을 때, 목 뒤쪽이 몹시 아플 때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치료를 서둘러야 한다.

통풍이나 홍반성낭창 등 관절이 아픈 질병은 류마티스관절염 이외에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의사들도 쉽게 진단을 내리지 못한다. 미국 류마티스 학회가 제시한 류마티스관절염 진단기준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아침에 관절의 뻣뻣한 증세가 1시간 이상 지속될 것 △관절염의 증상이 6주 이상 지

속될 것 △통증이나 부기가 좌우 대칭으로 일어날 것 등인데, 의사들은 보통 이 진단기준과 관절 X선검사, 혈액검사 등을 통해 최종 진단을 내린다.

류마티스관절염에는 진통제가 주요 치료제로 처방되는데 환자들 중에는 습관성이 된다는 이유로 복용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진통제의 복용은 염증을 가라앉혀 진통을 덜어줌으로써 활동을 할 수 있게 돼 결과적으로 관절을 보호해 주기 때문이다. 또한 치료제의 부작용으로 위나 간을 해친다고 해서 물리치료만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약물치료와 병행하지 않고는 효과를 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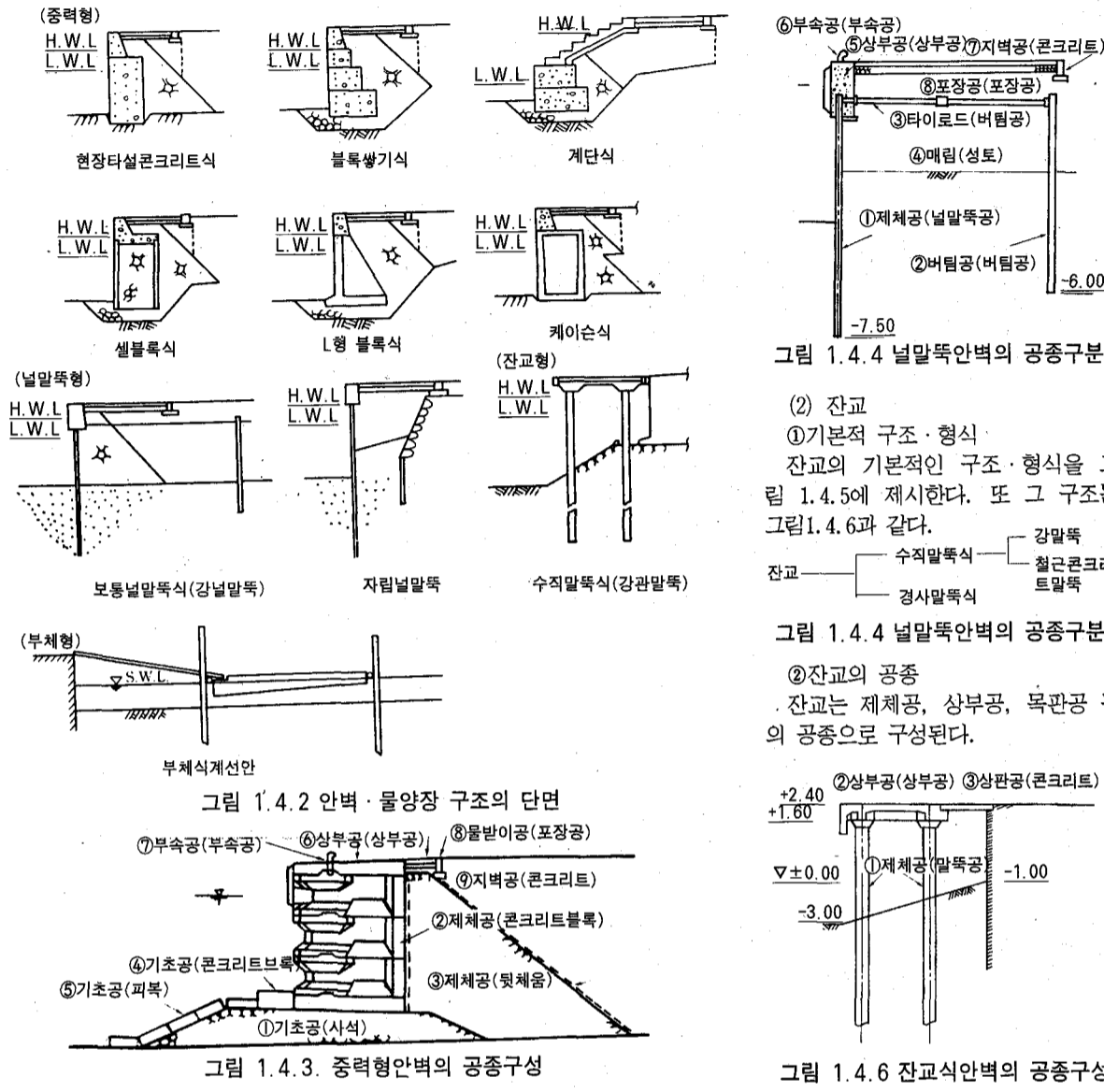
관절의 기능이나 근육의 힘, 혹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물리치료에도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관절염의 활막을 없애는 수술요법을 쓰기도 한다.

또한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들은 혈중 구리농도가 정상인보다 낮기 때문에 효과가 크다'는 그럴듯한 근거까지 제시하고 있는 구리팔찌도 치료효과와는 미지수이다. 관절염환자의 구리농도는 정상인과 크게 차이 없으며 오히려 구리농도를 낮추는 치료제가 있는 것으로 봐서 구리팔찌도 특효약은 아닌 셈이다.

널리 알려진 속설중 그런대로 맞아지는 것으로는 목욕과 뼈주사에 관한 것들이다. 관절이 뻣뻣하고 움직이기 힘든 병이어서 목욕은 통증완화에 도움이 된다.

어·항·교·실 漁港工事施工管理의 첫걸음

(5) 第1章 漁港의 各種施設과 工種區分



국세청의 전국 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은 첨단 전산장비를 갖추고 국세에 관한 모든 민원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국세청 민원봉사실 안내

간단한 사항은 전화자동세무상담으로

세무민원
신고 신청
방문 : 모든 민원서류
우편 : 재외국민 등의 인감증명서 및 해외이주자금 출처 확인원을 제외한 모든 민원서류
전화 : 납세완납증명, 미과세증명, 징수유예증명, 체납처분유예증명, 자산소득합산확인, 특별소비세(부과, 납부) 사실증명, 주장실수요자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세징수액집계표확인원
팩스 : 전화신청민원 12종 및 첨부서류가 간단한 과세특례포기신고 등 79종
※국세에 관한 모든 민원서류의 신청방법 및 처리기간은 PC통신(하이텔, 천리안, 포스서브), 총무처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에 수록되어 있다.
발급
방문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여 수령
우편 : 본인이 우표동봉 신청(가급적 등기우편)시 송달
※민원봉사실을 이용할때는 전화로 준비서류 등을 확인하고 방문시에는 주민등록증, 인장, 위임장(대리인의 경우)을 지참하는 것이 편리하다.

세무상담
세무상담은 어느 세무관서 민원봉사실에서도 가능하며 간단한 사항은 전화자동세무상담, 복잡한 사항은 전화상담, 방문상담이 좋다.
전화자동 세무상담(TRS)
전화자동세무상담은 주요세무상담 사례를 컴퓨터에 세목별, 항목별 입력하여 24시간 연중무휴 자동응답하고 있다.
이용방법
- 문의사항은 316개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 먼저 알고싶은 항목의 번호를 미리 확인한다.
- 항목번호는 PC통신 및 전화번호부에 수록되어 있다.
- 전자식(MFC)전화기를 이용하여 하며, 1회 이용시간은 3분이 고 전화요금 외에는 무료이다.
- 음성안내에 따라 원하는 서비스항목을 누르면 내용이 설명된다. 듣는 도중에 다른 항목을 원할 때는 전화기의 '#' 버튼을 누른다.
- 법령개정 등에 의하여 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항목에 대한 설명이 중지될 수 있다.
- 전국 어디서나 전화 700-1000번을 이용하여 팩스로도 내용을 받아볼 수 있다.
지역별 이용 전화번호

서울 (02)679-3200, 대전 (042)621-3200, 광주 (062)371-3200, 대구 (053)624-3200, 부산 (051)621-3200
전화상담
전화상담은 세무관서를 방문할 시간이 없거나 상담자가 익명인원할 때 이용하며 상담전에 상담요지를 메모하면 능률적이다.
세무 전산 서비스
전국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과 재산세과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양한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파트 기준시가 전산조회 서비스
문의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소재지, 명칭, 층수, 평형을 알려주면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개별 공지가 및 토지 등급 전산조회 서비스
공부상 토지의 소재지 지번을 알려주면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
전국 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에서 컴퓨터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준다.
PC통신 서비스
PC통신을 이용하면 다양한 세무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정보제공 및 구성
국세청 세무정보가 제공되는 PC통신망은 하이텔, 천리안, 포스서브이며, 이 정보는 세정안내 및 소식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 알고싶은 세금 문답 국세통계 개정세법 해설 학생들을 위한 세금교실 민원서류신청, 발급 및 서식제공 안내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료로 제공됩니다.
방문상담
방문상담은 사전에 민원봉사실에 통화하여 상담에 필요한 서류를 세무정보 찾아보기

구분	명령어 방식	절차	메뉴 방식
하이텔	GO NTAX	▷ 4. 생활/문화 → 14. 세무/법률 → 1. 국세청 세무정보	
천리안	GO NATAX	▷ 15. 경제/산업 → 5. 세무/법률 → 33. 국세청 세무정보	
포스서브	GO TAX	▷ 36. 기업/세무/무역 → 11. 국세청 세무정보	

구분	전화번호	구분	전화번호
국세청	(02)734-2100	- 대전	(042)625-2100
지방청		- 광주	(062)371-2100
- 서울	(02)720-2100	- 대구	(053)354-2100
- 중부	(02)470-2100	- 부산	(051)759-2100
- 경인	(0331)39-2100	세무서	세무관서 소재지 지역번호 - 2100

지참하도록 하고 방문시간을 약속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세금고충처리 상담
고충처리 대상
- 당초 처리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법, 부당하거나 현저하게 형평을 잃어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 당초의 사실조사나 확인이 미진하여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국제기본법에 의한 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가 진행중이거나 확정된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됨
고충처리 신청 및 절차
- 고충처리는 서면, 구두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고 민원봉사실장이 직접 접수하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된다.

생활정보